

특집 2

석유협회보

창간 20주년에 즈음하여...

유용한 정보와 반가운 소식을 담고
있어 항상 새로움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석유협회보'가
'약관(弱冠)'의 나이인 창간 2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니
그 시간의 깊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혈기방장하고 의욕이 넘치며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활기찬 청년의 때,
그 힘이 느껴지며 주변 상황을 이겨내는 슬기로운 또한
기대됩니다.<본문 중에서>

- 한국 석유산업의 산 증인
- 성년이 된 석유협회보, 새로운 시대 또 다른 모습을 기대하며
- 정유업계 종사자들의 선진 기술·정보 습득의 장으로
- 석유업계의 적극적인 홍보매체로 거듭나기를
- 정유업계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태어나길
- 다양한 채널 통한 홍보기능 수행해야
- 새천년 한국석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매체가 되기를

한국 석유산업의 산증인

처음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때 '석유협회보가 창간되지 벌써 20주년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곧 내 머리 속에는 '나도 석유업계에 몸 담은 지 어느덧 9년째에 접어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뒤따르면서, 입사 이후의 생활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사실 나는 친한 회사 선배들에게 가끔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이런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곤 한다. "선배들은 좋은 시절 많이 겪어보았지만, 우린 때를 잘못 만나 좋은 시절은 맛도 제대로 못보고 이런 격변기에 고생하고 있다" 라고...

물론 이런 말을 듣는 후배들은 "그럼 우린 뭐가?" 라고 얘기하고, 선배들은 "옛날에는 뭐 마냥 좋기만 했었고 힘든 일 없었겠냐?" 라고 반문하곤 하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입사 이후 참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한다. 입사 첫 해인 1993년 6대도시 주유소 거리제한이 철폐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석유 수출입업 자유화, 유가연동제 실시, 유가자유화 시행, 석유정제업/유통업 허가제 폐지, 대외개방 등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에 따른 자유화 정책 기조로 인해 국내 석유시장은 이에 반비례하여 경쟁이 심화되어 왔고, 최근에는 주유소 복수상표표시 허용까지 앞두고 있어, 이제는 그야말로 완전경쟁 시장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당시 내가 담당했던 업무는 이러한 석유정책의 변화를 1차적으로 대면하게 되는 것이었기에 남다른



오종훈

<SK(주) 석유사업마케팅전략팀 과장>

감회가 있으며, 내 주위에는 석유협회라는 든든한 동지가 있어 큰 힘이 되어주었다.

예나 지금이나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간혹 석유업계에 대한 국민들이나 정부, 언론의 오해로 말미암아 현실이 왜곡되고 갈등관계가 발생한다는 점인데, 석유산업이 국가경제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지만, 이 곳도 엄연히 각 경제 주체들이 정당하게 이윤을 추구할 수 있고 자유시장원리가 적용되는 그러한 영역임을 인정받길 바랄 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석유협회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정부가 올바른 석유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Supporting하고, 국내 정유사들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정책변화 시점에서는 국가 경제적인 측면, 국민생활에의 영향, 업계의 현실 등을 적절히 조화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국내외 석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업계 내의 각 경제 주체들의 경영활동에 일조하였을 뿐 아니라, 업계 현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한단계 높여 주었다고 생각한다.

간혹 국내 석유시장을 과점시장으로 표현하는 경우를 보곤 하는데, 현재 마케팅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나로서는 '그저 바라만 보고 짝사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단어에 불과하다. 과점시장을 단어 그대로 해석한다면 '몇몇의 공급자가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공급하며 이들이 파는 재화가 서로 유사하고, 몇몇의 공급자들이 서로 밀접한 상호관계를 가지는 시장'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국내 석유시장의 상황은 어떠한가? 수입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석유제품의 국내 수요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공급자들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어 국내 어떤 산업에 못지 않게 경쟁이 치열한 시장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따라서, 업계 전체의 Value를 키우기 위한 공동의 노력은 이제 먼 옛말이 되어버렸으며, 각자의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석유협회는 과거와 같은 업계 Consensus 도출이 여의치 않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석유협회가 나아갈 방향에 관한 개인적인 바람을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한다.

우선, 석유협회의 전문성을 더욱 보강하여 정책 및 여론을 Lead할 수 있는 내용의 글들을 자체적으로 많이 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업계 공통의 Consensus 형성이 불가능할 경우,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자체적인 논리를 수립, 전개한다면 업계 대변자의 역할보다 한단계 Up-grade된 선도자

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으로는 석유협회보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항에 대한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두가 동의하는 해답을 찾기 어려운 경우, 그것을 덮어놓기보다는 석유협회보를 통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장단점을 비교해 볼 수 있다면 간접적으로나마 업계의 발전방향을 나름대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석유협회보 내에 해외 석유시장에 관련된 자료가 좀 더 보강되었으면 한다. 이제 석유산업도 Global 경쟁상황에 직면한 만큼 해외 경쟁자들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으며, Benchmarking하거나 타산지석으로 삼을만한 해외 사례들이 더 많이 소개되어 국내 석유산업의 경영개선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석유협회보가 창간된 이래로 현재까지 수많은 정보와 제안들이 수록되면서 그 중에는 경사스러운 내용, 안타까운 내용들이 함께 묻어 있었을 것이며, 이는 곧 한국 석유산업의 산 증인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어쩌면 석유업계는 지나온 20년 동안 겪었던 것 보다 앞으로 더 많은 변화들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며, 그때그때마다 석유협회보는 석유업계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석유업계에 몸담은 이후 수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점점 더 강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듯이 석유협회보도 지속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석유업계의 오랜 동반자이자 든든한 지원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석유협회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